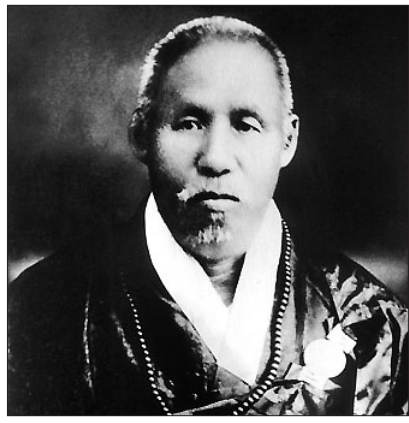


독립정신 깃든 사찰, 지금은...

윤봉길 수계 도량... 대각사상 꽃피운다

서울 대각사

“용성 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던 독립운동 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스님은 매년 윤봉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위국충절의 사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용성 스님 영정

광복 이후 김구 선생이 1945년 12월 12일 귀국 20여일 만에 대각사 용성조사전을 찾아 통곡하며 내뱉은 말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밀이었던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활동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912년 창건이후 독립운동 지원 김구선생 실천행자 서원 사찰 대각회·불광사 등 창건 배경 용성 총서 발간 대장경 진행중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각사는 민족해방 운동을 위해 용성 스님이 세운 사찰로 용성 스님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이때 용성 스님은 대각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조우한다. 김구 선생은 1919년 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된 이후 탈옥한 상태였다. 마곡사에서 스님이 돼 ‘원종’이란 법명을 받은 김구 선생은 대각사에 머무르며 용성 스님의 영향을 받아 민족을 살릴 대원을 세우고 실천행자가 되기를 서원한다.

용성 스님은 14세에 출가해 해인사·보광사·송광사 등에서 용맹 정진했다. 용성 스님은 산중생활을 청산하고 1911년 2월 상경한다. 당시 스님은 봉익동 민가를 절집으로 바꿔 대각사를 창건한다.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이러한 독립운동의 근간은 구세와 자아완성이 둘이 아니라 대승불교 사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3·1운동 당시 스님은 33인 민족대표를 결속시켰다. 바로 용성 스님이 막후에 있었다.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민족대표 33인의 거사는 용성 스님의 중재가 없었다면 종교간 갈등으로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후에 이 인연으로 김구 선생은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용성 스님은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용성 스님이 1930년 윤봉길 의사에게 3권의 5계를 주어 불자로 삼은 곳도 바로 대각사였다. 윤 의사는 만주 용정의 대각사를 거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행보가 크게 갈릴때 용성 스님은 동북아 국제정세를 활용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1945년 12월 12일 김구선생의 종로 대각사 참배. 가운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이 백범김구 선생

쳐 상해의 김구 선생에게 보내게 돼 의지를 거행한다.

용성 스님은 대각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전번역과 전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화과원을 세워 잉여농산물을 팔아 독립자금과 독립군 식량으로 사용했다. 1931년 결국 독립운동 근거지로 발각된 대각사는 조선총독부에 재산 몰수를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현재 대각사에는 스님을 기리는 비석이 조촐하게 서있다. 용성 스님은 광복을 앞둔 1940년 4월 1일 급작스럽게 대각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스님의 다비식은 일본 경찰의 철저한 방해와 수색 검열 등으로 제자 몇 명만이 참여해 치러졌다.

이런 역사가 인하여 대각사에는 근현대 선지식들이 거쳐갔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동산·고암·해암·법전 스님을 비롯해 자운·송암·지관 스님 등이다. 대각사에서 정진한 이들이 이후 3000여 명이나 된다.

1974년에는 불광법회가 열리고 그 영향으로 불광사가 세워지기도 했다. 현재 대각사는 대각회와 조계종의 법인등록 사찰이다. 현재 용성 스님이 거주하던 단층 기와집은 헬리오 지금은 현대식 3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1969년 조계종 종정이었던 고암 스님과 용성 스님의 상자와 손자자들이 용성 스님의 대각회 창립정신을 기리고 대각사상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대각회’다. 대각회는 현재 2013년부터 동국대와 함께 용성 스님이 남긴 60여권의 저술과 번역서를 정리하는 한편 새 자료를 발굴해 20여권의 총서를 엮는 대장경에 들어간 상태다.

대각회는 “대각사를 비롯한 대학회의 사찰들은 용성 스님의 민족독립과 중생제도의 원력을 이어 대승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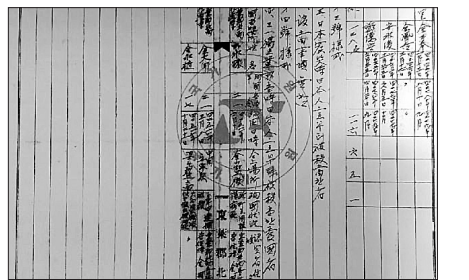
1940년대 종로 대각사의 모습.



종로 대각사의 현재 모습.



2015년 3월 1일 금정중학교 학생을 비롯한 부산시민들이 펼친 동래 만세운동 재연 모습.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범어사 지방학림·명정학교 만세운동 참가자 명부'



명정학교 졸업사 사진(현 금정중)

학림스님들, 동래 만세 시위 이끈 산실

부산 범어사

3·1만세운동으로 드러났듯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민초들의 삶 곳곳에서 진행됐다. 부산의 대표사찰인 범어사 또한 이러한 역사가 전해지는 곳이다.

서울에서 민족적인 3·1 독립의거가 무르익어 가던 1919년 2월 만해 한용운 스님은 범어사로 내려오게 된다. 바로 부산지역의 3·1운동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범어사 주지 오성월 스님을 비롯해 이담해, 오이산 등 범어사 스님들과 만해 한용운 스님은 중대사를 의논하고 서울로 돌아간다. 당시 오성월 스님 등 7명의 대표자들은 서울의 3·1운동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 불교 중앙학림(현 동국대 전신)에 재학하던 김상현은 범어사 지방학림을 졸업한 김법린과 함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지도하에 중앙학림 학생들의 모임인 유심회를 이끌고 있었다. 당시 불교교리와 민족사상 연구에 관한 잡지(유심)의 편집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각 지역대표에게 연락하는 책임도 맡고 있었다.

김법린과 김상현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지시에 따라 3월 4일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에 관계되는 문헌들을 뭇집 속에 감추어 가지고 범어사 청련암에 도착했다. 이들은 3월 17일 저녁에 개최된 명정학교, 지방학림 두 학교 졸업생을 위한 송별연 모임에서 3월 18일 동래를 장남을 기하여 의거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방학림 3년생 허영호(허영호)에 의해 독립선언서와 격문, 1,000개가 준비되었고, 태극기 큰 것 1개와 작은 것 1,000개는 주동인물 등에 의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3월 17일 저녁 졸업생 송별연 모임은 김

영규의 축사를 끝으로 모두 ‘대한독립만세’ 3창을 외쳤고, 청련암으로 자리를 옮겨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동래읍에 잠입하기로 하였다. 불교포교당에 18일 새벽 한시쯤에 도착하였으나, 명정학교 학생 60여명이 일어고사 나까무라에게 고발해 일본헌병과 경찰 20여명이 들이닥치게 된다. 이에 김영규, 차상명, 김상기, 김학기 등이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강제로 해산된다.

다음날 19일 아침에는 허영호가 작성해 놓은 ‘一死莫如得自由(한번 죽는것은 자유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민족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격문과 독립선언서를 동래시장을 비롯한 동래읍 일원에 뿌리며

청년불자 힘모아 만세운동 전개 범어사 비롯 곳곳에 흔적이... 중립학교에 교육관 지어 교육 “선조 원력 계승, 지속 노력”



범어사 순환도로에 설치된 만세운동 유공비

다시 시위행진이 전개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십명의 명정학교, 지방학림 학생들과 민중들이 합세하여 동래시장 남문부근에 다시 집결해 그 인파는 부산부 2000명, 동래군 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진하다가 강제 해산되고 주동인물은 대부분 검거되었다. 또 현재 부산 금정중학교인 명정학교는 폐교 조치를 받았다.

강대민 경성대 사학과 교수는 범어사의 만세운동을 “시위 횡수나 적극성을 볼때 규모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범어사의 거는 조지화된 독립운동의 발현으로 범어사의 근대불교화 과정의 결과물적인 성격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범어사 만세운동으로 재판받은 사람은 34명에 달하며 대부분 부산 또는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부산 동래의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과 시위횡수는 전국에서 경기도와 황해도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항일정신이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범어사는 왜색불교 청산에도 앞장서 2009년 대웅전 앞 석탑의 하단 일본식 조성 난간 제거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불사를 벌여 2012년 대부분을 일제 이전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산하 중립 금정중학교에 유공비와 함께 현충시설인 교육관을 지어 이러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 범어사의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부산시는 1995년 범어사 순환도로에 삼일운동 유공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뜻을 바르게 이어야 한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